이탈리아 고모 섬유 산지의 미래

- 이데아 고모 협회의 활약과 중국품에의 대응책 -

이데아 고모 협회는 1975년에 이탈리아의 실크 산지인 고모의 브랜드를 내세우고자 고모 산지의 레이디스용 실크나 울, 코튼의 고급 원단 메이커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만들었다.

이 협회는 세계적으로 실크 제품이 유명한 고모 산지에서, 세계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이 레벨과 미들 레벨의 마켓에게 고급이면서 기술 혁신성이 높은 원단을 판매 촉진하여, 수출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모가 뜻을 이루어 자랑하는 실크 제품 분야로 최고 중국 등의 신흥 섬유 생산국 제품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옴으로써 고모의 대응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

① “Sistema Moda”로서 조직을 통하여 수입품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컨트롤 할 것, 예컨대 위제품(僞製品), 환경 문제, 유아ㆍ어린이 등의 노동 등이다.

수입품이 이들 내용을 잘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컨트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② 제품의 이노베이션화를 강력히 밀고 나간다. 시장의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제품의 차별화, 크리에이티브성이 높은 제품, 세련된 센스 등을 추구한다.

이탈리아 고모 산지에는 ‘아름다움(美)’의 DNA가 있는데, 이는 중국인 등

이 쉽게 모방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들어 키워온 이탈리아의 실크 원단의 품질 브랜드 “Seri.co”는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및 직업 윤리를 존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고모에서 100년 이상의 전통과 경험을 쌓아, 키워온 DNA로 예능의 자상한 노하우나 실크 상품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품질 브랜드가 되어 있다. 이탈리아에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부른다’는 속담이 있다. 고모 호수와 그 주변의 매우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다운 실크 제품을 만들어 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낼 것이다.

이들 제품을 이데아 고모의 국제 전시회를 통하여, 또한 원단 디자이너 협회가 “COM-CREA” 전시회를 통하여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 아름다움을 만드는 DNA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는 방침

고모 산지에서는 실크 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각 공장에서 최고의 설비, 노하우, 그리고 미적 센스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주기 바란다.

스크린 날염용의 무늬를 제작부터 마무리 공정까지, 품위가 있고 고상한 천을 제조하기 위한 고모의 각 업종의 체인 구조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이며, 이를 우리는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탈리아어로 필리에라(Filiera)라고 하는 체인 구조는 아직 온전한데, 그러나 최근의 값이 떨어진 달러화나, 뉴욕의 트윈 타워의 테러 폭파 사건 등으로 소비가 줄고, 유행의 캐주얼화 경향에 따른 의복 스타일의 변화 등에서, 고모 섬유 산지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모 산지의 업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직영점 방식을 세계적으로 사업화하는 것은 적으나, ETRO 등은 자사 제품을 세계의 직영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HIANI사(社) 제품을 세계의 직영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그룹인 Tie Lach사가 넥타이 등을 공항의 면세 부티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고모 산지 업자들은 오래된 고객을 소중히 모시고 있다.

◎ 고모의 디지털 날염 - 현재는 샘플 작성용

세계적으로 디지털 날염이 화제가 되어, 다품종 소량의 프린팅이 많은 고모에서 종래 방식의 날염 공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모의 잉크젯 날염 장치의 가동 대상은 현 시점에서는 단시간에 사내에서 소량 생산한다는 뜻에서 콜렉션용의 샘플 제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제품용으로 이 디지털 날염 방식을 쓰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날염 디자인에서 바림(gradation) 표현 무늬가 많은 것, 또는 많은 색을 사용한 디자인의 경우, 잉크젯 날염 방식은 생산 코스트가 싸고 샘플 제작도 단시간(1~2일 정도)에 되고, 클라이언트에게 빨리 배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한 분야에서 신속히 잉크젯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잉크젯 방식은 종래 방식의 날염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① 시설이 아직도 너무 비싸다.

② 프린트 색의 품질은 더욱 개량할 필요가 있다.

③ 실크 천이나 아세테이트 천의 프린트 가공은 잘 되는데, 폴리에스터 천

의 경우는 아직도 더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더 발전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④ 울(wool) 천의 경우 색이 천에 배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⑤ 프린트 가공의 스피드가 너무 늦다.

따라서 종래 방식의 날염기를 이용한 날염은, 잉크젯 방식과 비교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잉크젯 날염 장치는 다른 유효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이다.

◎ 소비자가 환경과 생산이 조화된 산지로 인식 바람

최근 중국에서 실크 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생사의 수출보다는 실크 의류품, 넥타이, 스카프 등의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대항책으로서 R&D로 크리에이티브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시장에서 고모의 실크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제부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독성이 있는 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피부에 위험이 없으며, 사회적인 권리 보장, 또한 우리 고모 산지가 바다나 하천이나 호수에의 배수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는 것 등, 세계 수준으로 환경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주의하고 있다는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PR이 앞으로의 국제 경쟁력의 큰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염색, 날염, 마무리 가공 등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염료나 재료 등의 사용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다. 예컨대 어떤 종류의 적색 염

료가 위험하다고 결정되면, 가공 메이커는 그 염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모의 호수는 매우 아름답다.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환경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이 투자해 왔다.

◎ REACH법은 브뤼셀에서 정보 수집 중이며, 과격한 조치는 금물

유럽 내에서는 이미 재료의 사용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어 어떤 면에서는 도를 넘고 있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우리는 환경과 생산을 조화시키느라 노력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널리 인식하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면 결과적으로 고모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든 화학 물질을 재평가하기 위한 REACH법이 EU에서 심의 중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도를 넘은 것이 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다.

이탈리아의 화학 산업이나 텍스타일 산업 협회가 REACH법에 대한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 EU의 텍스타일 및 의복 협회에 대하여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법이 너무 도를 넘는 법률 내용이 되지 않도록 희망하고 있다. ♣